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⑦

본성은 미혹과 생사가 본래 없어

如中論偈中說：

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 亦名爲假名 亦名中道義

여기부터는 원만한 공가중삼관(空假中三觀)의 이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중론(中論)은 중관론(中觀論)이라고도 한다. 중론은 인도의 용수보살이 지은 논서인데, 27품 446계송으로 되어 있다. 논서의 이름을 중(中)으로 명칭한 것은 실제의 이치를 관조했기 때문이고, 논(論)으로 호칭한 것은 그 이치를 언어로 끝까지 설명했기 때문이다.

실제의 이치는 명칭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이라는 명칭에 의지해서 의미를 선양하였고, 언어로 풀이하지 않으면 의미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논'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대체로 수행인이 내적으로 마음이 막히고 미혹하면 전도된 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편집된 견해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타파하려고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 중도의 이치로서 절충하여 진제와 속제가 두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중관론이라고 명칭하였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이와 같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모든 법은 /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하며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라고도 하고 /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이 네 구절의 계송은 의미가 심오하고 현묘하여 여래의 삼장십이부교(三藏十二部教)가 이 사구계 가운데 포섭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이란 모든 허깨비와 같은 모습을 지적해서 한 말이다.

색향미촉(色香味觸)과 지수화풍 등 여덟 가지 물질은 이루는 근본요소를 능소팔법(能所八法)이라고 한다. 이 여덟 가지 법으로 이루어진 몸인 근신과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세계는 모두가 허깨비 변화와 같아 색향미촉으로서 지수화풍 사대를 허깨비로 이루고 지수화풍 사대는 일체 근신과 기계를 허깨비로

이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음과 육입과 십이처와 십팔계이다.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능소팔법으로 이루어진 오음 십팔계가 출생한 자리에서 바로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체 모든 법은 허공 꽃과 같아 일어나도 일어나 곳이 없어 일어나는 참나에 즉시 소멸하며 소멸했다 해도 사라진 실재의 초소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하고 상주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가고 오고 미혹하고 깨닫고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추구해보았으나 끝내 실재하는 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은 자체가 공성 차별상은 허망한 분별상으로 관찰해야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다'라고 하여 허깨비 망상으로 호칭한 의미는 속제를 의지해서 십팔계의보장보의 인과가 갖가지의 모습으로 차별이 나면서 동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인연으로 화합하여 허망으로 일어났다가 인연이 분리되면 허망한 명칭도 소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거짓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중도의 의미이다'라고 한 것은 그 진실한 성품은 오묘한 깨달음으로써 밝은 자체라는 의미이다.

십팔계의 법마다 본성을 자체로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든다면 허공 꽃은 자체 성질이 허공이며 달 밖에도 하나의 허깨비 달의 본성은 바로 진실한 달인 것과도 같다.

이는 생멸거레가 본래 없는 여래장으로서 상주하고 오묘하고 분명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루 원만하고 오묘한 진여가 그 성품이다. 이는 진제와 속제가 두 모습이 아니라 '또는 중도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 문제를 능엄경에서는 '보는 마음과 보이

는 대상에서 망상으로 분별하는 것이 마치 허공 꽃과 같아 본래 실재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은 그 자체가 공이라는 의미이다.

'본래는 오묘하고 밝은 위없는 보리로서 청정하고 원만한 진심자리였는데 그것이 망상으로 물질과 허공과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는 마음과 보이는 대상이 원래 보리로서 오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자체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에 해당된다.

'여래장의 오묘하고 원만한 마음에선 십팔

계의 차별이 동시에 부정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은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에 해당된다.

여래장의 원래 밝고 오묘한 마음이 십팔계의 차별상과 동시에 상즉하였는데, 이것은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라고도 한다'에 해당된다.

'여래장의 오묘하고 밝고 근원적인 마음에 상즉함도 아니고 상즉 아님도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에 해당된다.

이상은 능엄경에서 인용하여 사구계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중론의 사구계를 장통별원사교(藏通別圓四教)로서 논변한다면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모든 법'은 장교(藏教)에 해당되고,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는 통교(通教)에 해당되며,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라고도 한다'는 별교(別教)에 해당되며,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는 원교(圓教)에 해당된다.

이것은 한결같이 심천의 단계적 경지에서 차별적으로 말했지만, 만일 이 모든 차별을 부정된 상태에서 논변한다면 차별상이란 원래

그 자체가 허망으로 떠오른 분별상이라고 관찰해야만 된다.

그렇다면 십팔계 가운데 중생계인 구법계의 오음 십이처 십팔계가 허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오음 육입 십이처 십팔계까지도 허망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하지만 제법의 본성은 원래 진실하여 오묘하고 분명할 뿐이라고 관찰한다면 십팔계가운데 모든 부처님법만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구법계의 차별상까지도 낱알이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 발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구법계의 모습은 허망이고 부처님 세계의 오묘한 모습은 온전히 진실인데 어떻게 이 모두를 허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미혹을 대비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번뇌오염을 상대해서 청정함을 설명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체는 비록 진실이나 진실이다 허망이다 표현된 명칭은 모두가 동시에 허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망을 말하여 그에 상대되는 진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에 허망과 진실이라는 명칭은 둘 다 허망이라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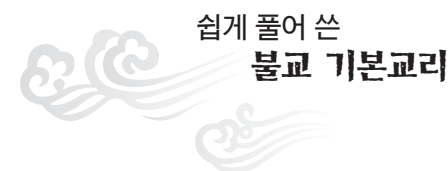
부처님 세계의 성품은 진실이고 구법중생의 성품은 온전히 미혹에 소속한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와 중생을 동일하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이 집을 보았을 때 집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돌지 않는 것과도 같고, 또 길가는 사람이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였다 해서 그 방향마저 실제로 옮겨간 것은 아니며, 새끼줄을 뱀이라고 오인하였으나 새끼줄은 원래 삼킨이 없으며, 물로 이뤄진 얼음은 그 성질이 원래 습하고 맑은 것과도 같다. 그 때문에 차별상을 관찰하면 원래 허망이나 그 본성을 관찰하면 본래 진실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스테이프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지관)와 용법유사의 비법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집결지인 유식학의 신유식(新遺失)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4) 수습위(修習位)

수습위(修習位)는 통달위로 나아가 진여의 진리를 다시 닦고 익혀서 온갖 장애를 끝까지 끊는 단계를 말합니다.

십지에는 매지마다 입심(入心)·주심(住心)·출심(出心) 등 삼심(三心)이 있습니다. 처음 초지의 주심과 출심으로부터 마지막 금강정무간심위(金剛定無間心位)에 이르기까지, 즉 최후 구경각에 당도하기 한 찰라 이전(등각위)까지를 모두 합해서 총체적으로 수습위라고 합니다.

수습위는 모든 보살이 마음을 머무는 것이라고 해서 수도위(修道位)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견도위는 초지의 삼심 가운데서 입심(入心)에 머물 뿐이고 수도위는 초지의 두 번째 마음인 주심(住心)으로부터 십지(十地)의 종심(從心)인 금강심(金剛心)·무간도(無間道)까지를 포괄합니다.

이 같은 장구한 세월의 수행위차가 모두 이 수습위에 포함됩니다. 또 매지마다 입주출삼심(入住出三心)으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매 입심을 다시 가행도(加行道)·무간도(無間道)·해탈도(解脫道)·승진도(勝進道) 등 사도(四道)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심을 처음 가행심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무간심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해탈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으로 승진심을 일으켜 지해가 참나 참나에 더욱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주심과 출심에도 각각 사도(四道)가 있다는 것을 입심의 예를 의거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위에서는 근본무분별지를 부지런하게 빈틈없이 수습하여 번뇌장·소지장등 이장번뇌종자를 끊어 버리고 광대한 전의(轉依)를 증득하게 됩니다. 전의에서 '의(依)'는 의지할 대상의 의타기성(依他起性)을 말합니다. '전'에는 전사(轉捨)와 전득(轉得)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해 본다면 수습위는 근본무분별지를 간담없이 수습함으로써 제팔식 가운데 합장되어 있는 이장번뇌종자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의타기성에서 잘못 일으키고 있는 변계소집성의 망상을 전환해 버리고<轉捨>, 의타기(依他性(如幻性)) 가운데서 의타기성이 본래 공적한 이치인 원성실상으로 전환해 그 이치를 증득하는 것입니다(轉得). 즉 전사에서 동시에 전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장번뇌 가운데서 번뇌장을 전사해 버림으로써 대열반을 전득하고, 소지장을 전사해 버림으로써 무상각을 전득한다는 것입니다.(『成唯識論』 9권 참조)

수습위에 들면 구생혹(俱生惑)의 탐심과 집심은 일어나지만 분별혹(分別惑)의 탐심과 집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張如舟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4. 18(토) 오후 1시부터 ~ 4. 19(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전문자격증 교육생 모집!

보건식품처방사

자격증은 자격정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자격 심사를 통하여 발급합니다

경기불황! 은퇴! 두려워 하지 마세요~
미래 건강처방 전문가의 길을 통해 당신의 희망과 꿈이 보입니다.

- 보건식품처방사란? 식약청이 인정한 식품원재료를 기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는 전문가
- 교육 대상자
 - 1) 현재 건강원(중탕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강보조(기능)식품 전문판매자
 - 2) 약산식이 및 전통차와 관련 점포를 운영 또는 사업을 하는 자
 - 3) 건강웰빙 식품사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자
 - 4) 건강보조(기능)식품 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준비 중인 자
 - 5) 해외이민 희망자, 식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희망자

교육 과 목	교육 기간	특 전
전자전치유론, 약초기초, 동양의학기초, 식이섭생, 약차 처방론, 체질론, 약초관리론, 식품위생보건학, 약용식품 영양학, 식재료관리, 임상질병학, 식의처방학, 체질론, 식의학, 식의실습, 중탕론 I, 약초식품방, 약초법제론, 중국황실약산의방, 중국약초식품방, 식의내과학, 음 양의학, 식의화학론, 식품발효학, 중탕론 II, 특별강의	총 96시간 (12주 / 3개월) 토요일반 주 중 반 (주간/야간)	● 보건식품처방사자격 및 수료 ● 중국특별 약초비방 전수 ● 보건식품처방사학회원 혜택 ● 해외 및 국내 관련사업, 창업컨설팅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 문의 : 02)393-5111 / FAX 02)312-5404 www.kile.or.kr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